

■ 2026 새해설계 임택 광주 동구청장

# “경제위기 극복…밝고 활기찬 도시 건설 매진”

지역화폐 발행·인공지능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  
13개동 마을사랑채 완성…주민주도 마을복지 실현

“장기화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지역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밝고 활기찬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 7년간 추진해 온 각 분야별 주요 사업이 결실을 맺어 주민의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동구의 미래 발전 초석을 튼튼히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오년(丙午年) 새해 목표는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산업 육성, 복지·건강도시 조성, 기후위기 대응, 인문·교육도시 확장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0억 원 전량 완판 성과를 거둔 지역화폐 ‘광주 동구랑패이’를 올해 총 100억원 규모로 확대, 상·하반기 각각 50억원씩 두 차례 발행할 계획이다. 또 연 매출 2

억원 이하 임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는 카드 매출액의 0.4%, 최대 30만원을 지원해 대형 유통 중심 소비구조 속에서도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 정장은 AI 창업·실증밸리 조성, AI 헬스케어 혁신기업 유치, AI 콤플렉스 센터 설립, 선교지구 광주 AI 노화산업 실증연구 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무등산·의재 문화유적지·춘설차 발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과 총장로 ‘AI 창의문화복합공간(가칭)’ 조성, ‘제23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글로벌 명품 축제화로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인다.

5년 차를 향해가는 ‘총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기존 총장로 3가에 조성한 홍콩 골목 및 해점포 활성화에 집중한다. 광주관광공사와 동구문화관광재단 등과 연계한 ‘총장골목여행’ 상설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총장마을백화점’의 사업 대상지를 총장로 5가에서 4가까지 확대한다.

또 광주극장과 독립서점 소년의 서 등 인근 로컬브랜드와 연계한 F&B 입점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공동체 부문에서는 쪽빛상당소,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마을사랑

채 등 공동체 거점을 통해 상담·돌봄·주거가 연계된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13개 전 행정동 마을사랑채 시대를 열어 주민주도형 마을복지 모델을 완성해 나간다.

특히 제림동 쪽방촌 거주민과 은둔형 외톨이 등 고립위기 가구의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병에 사회복지 공무원’과 ‘우리동네 복지보안관’ 운영을 비롯해 지역 언론사와 연계한 ‘행복신

동시에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옛 위생매립장 자리에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H-파크’를 조성하고, 산수2동 자원순환형 그린마을, 산수동 천 환경자원순환센터,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저층 주택이 빈집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고향사랑기부금을 접목시켜 진행한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제10대 의장도시’인 동구는 디지털 스마트 생활 시스템, 맞춤형 건강관리,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환경, 주민주도 건강 공동체를 4대 목표로 동구통합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스마트 건강도시 기반을 강화하고, 보건소를 4개 과로 확대하며 ‘생명 존중팀’ 신설과 신년 시무행사로 서로 묻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고위험군 밀착 관리 체계를 지켜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30여개 공·사립 작은도서관, 동구 인문학당, 시민 문명란의 집 등을 인문 거점으로 육성하고, 책 배달 서비스를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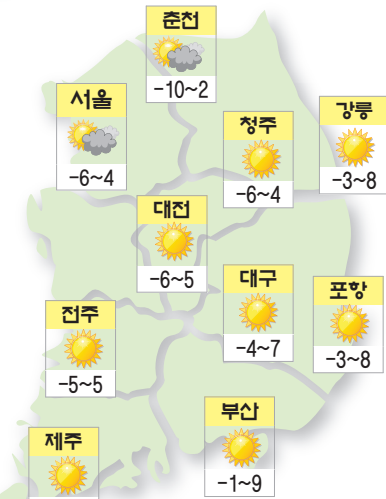
또 동부교육지원청·총장중학교와 함께 하는 ‘인문 특성화 시범학교’ 운영, 독서 캠프·인문 강좌·문학 기행 등 인문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문도시 가치를 교육 분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올해는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다”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기존 정책에 내실을 다지고 인문도시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맑음 07:42 달달 20:49  
☁️ 맑음 17:35 달달 09:52



광주	☀️	-3~7
목포	☀️	-3~5
여수	☀️	-2~8
순천	☀️	-3~9
구례	☀️	-4~8
광주	☀️	-4~7
진남	☀️	-2~8
진남	☀️	3~7
고흥	☀️	-4~9
진도	☀️	-1~6

목포	밀물(고)	03:48 / 16:40
	썰물(저)	09:08 / 21:49
여수	밀물(고)	11:21 / 23:28
	썰물(저)	04:46 / 17:22

## “한빛원전 수명연장 반대”…도보 순례 출발

전국 41개 단체 동참…정부 정책 전환 결단 촉구

한빛원전력발전소 1·2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탈핵단체와 종교계,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전국 41개 시민·종교·환경단체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은 5일 한빛원전본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핵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탈핵희망 전국순례’ 도보 행진에 돌입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한빛원전을 비롯해 고려원전, 기후에너지 정책의 책임 기관이 있는 세종시에서도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순례 출발을 알렸다.

이들은 “핵발전소가 위치한 고리와 한빛, 그리고 정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세종에서부터 탈핵희망 전국 순례를 시작한다”며 “더 이상 이 땅에 핵발전소는 필요 없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책임 있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원전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정부가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기습적인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 졸속적인 방식으로 수명연장 문제를 처리하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과학과 헌법, 민주적 속의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 결정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탈핵희망 전국순례는 16일간 진행되며, 한빛·고리·세종에서 각각 출발한 행렬이 총 857km를 도보로 이동해 최종 목적지인 청와대에 집결할 예정이다. 청와대 앞에서는 오는 20일 낮 12시 탈핵미사가, 같은 날 오후 1시 기자회견이 열릴 계획이다.

탈핵시민행동은 순례 기간 동안 노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지역 주민의 생존권,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전국에 알리고, 정부에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할 방침이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



와! 방학이다 5일 겨울방학에 들어간 광주 북구 일곡초등학교 4학년 4반 학생들이 생활통지표를 흔들며 즐거워하고 있다. 광주지역 대부분 초등학교는 이번주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연탄값 ‘쑥’ 후원 ‘뚝’…취약층 겨울나기 이중고

광주·전남 수급자 3년 연속 증가…인구대비 7%  
고물가·경기침체 등 직격탄…생계정책 지원 시급

광주·전남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마다 늘어나며 복지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던 가구들이 버티지 못하고 복지 지원 대상층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광주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2023년 9만6473명, 2024년 10만201명, 2025년 10만3388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도 약 7% 수준으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역시 기초수급자(2022년 10만4064명, 2023년 10만7240명, 2024년 11만861명)가 꾸준히 늘며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급자 증가의 배경으로 차상위계층 확대를 꼽는다. 소득 기준을 간신히 넘겨 기초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주거비·난방비·식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 한 복지 관계자는 “최근 상담 사례를 보면 ‘이젠 더 이상 여력이 없다’는 호소가 많다”며 “차상위에서 수급자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는 겨울철 난방 문제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광주·전남 외곽 지역에는 여전히 연탄에 의존하는 가구가 적지 않다. 발상공동체연탄은행이 발표한 ‘2025년 전국 연탄사용가구 조사’ 결과 현재 광주 821가구, 전남 2577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광주는 73.9%, 전남은 84.8%가 기초수급·차상위 등 취약계층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연탄값 상승이 이들 가구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광주 남구 연탄공장 폐쇄 이후 광주·전남 지역은 외부 지역에서 연탄을 들여오고 있으며, 운송비가 더해지면서 광주는 장

당 1000원, 전남은 1100원~1200원에 달한다.

이에 광주시는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최대 20만원을, 전남도는 가구당 9만9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연탄쿠폰까지 포함하면 가구당 57만~67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겨울철 평균 소비량을 고려하면 전체 필요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상당 부분을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다.

설상가상으로 민간봉사단체의 후원 문 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이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민간 후원이 위축된 데다, 연탄 유통·운반 인력의 고령화로 공급 여건까지 취약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늘고 있는 저소득층이 사회 변화에 밀려 내려온 계층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광주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차상위계층이 무너지면 복지 수요는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며 “난방과 식사처럼 기본 생계를 지탱하는 영역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역주행 시내버스·SUV ‘광광’

만년필 ○·○·광주 도심에서 역주행한 스포티지 차량이 시내버스와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을 잇달아 들어받아 총 6명이 중상을 입어.

5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17분 광주 북구 용전동 한 도로에서 스포티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첨단 95번 시내버스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충돌 충격으로 튕겨 나간 스포티지는 시내버스를 뒤따르던 SUV와 다시 충돌하는 2차 사고를 낸 뒤에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60대 스포티지 운전자 A씨와 중상을 입었고, 스포티지 동승자와 시내버스 운전기사, 버스 승객 3명 등 5명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임영진 기자 looks@

방문판매 고객 집 턴 40대

2000만원 흡친 혐의 구속

방문판매를 빌미로 고객의 집을 드나들며 현금을 흡치고 돈까지 빌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절도 및 차용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B씨의 자택에서 방문판매 활동을 하던 중 집 안에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 등 2000만원 상당을 흡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모두 12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방문판매 과정에서 파악한 피해자의 주거 구조를 토대로 금고 위치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추적에 나서 같은 달 24일 전남 순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